특별판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이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19] 기술 : 세슘 원자시계의 원리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물리(원자) - 세슘 원자시계

세계 도량형 총회, 세슘 원자시계, 국제 표준 시계, 세슘 원자, 전자기파, 진동, 원자, 에너지, 전이, 바닥상태, 안정적인 상태, 최외각 전자, 궤도, 물리량, 스핀, 들뜬상태, 주파수, 시계 주파수, 전압, 수정 발진기, 주파수 합성기, 원자 공전기, 원자 방출기, 피드백 전자 회로, 표류 속도, 오차 신호

*** 지문 분석**

 # 문단1 : 세슘 원자시계

1) **세계 도량형 총회**는 **'세슘 원자시계'**를 **국제 표준 시계**로 채택한 바 있다.

⇒ 시계도 국제적인 표준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시각이나 시간의 표준이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르다면 국제화 시대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시각이나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물리량 역시 그러하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현재 사용하는 표준 시계는 세슘 원자로 만들었나 보다.

[참고] 시간뿐만 아니라 길이, 질량, 온도, 전류 등 기본적인 물리량 역시 측정 표준의 기초로 활용된다. 가령 '1미터'의 경우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로 정했으나, 자오선 길이 측정의 어려움에 따라 세계 도량형 총회는 백금-이리듐 합금 막대로 제작된 미터원기를 새 표준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 미터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항상 일정하므로, 진공에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1미터를 정의해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이는 1초(秒)의 길이를 **세슘 원자**가 흡수하는 특정 **전자기파**가 9,192,631,770번 **진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으로 세며, 그 오차는 3,000년에 1초 이하로 매우 정확하다.

⇒ 세슘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어떤 전자기파가 9,192,…… 어쩌구, 여하튼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1초의 길이가 되겠다. 3,000년에 1초 이하라니, 전자기파의 진동에 의해 작동되는 시계인 만큼 오차가 거의 없다는 거다.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모르겠으나 멋진 신세계가 펼쳐진 것만은 분명하다.

[참고] 과거에는 1초를 태양일 즉, 하루를 쪼개어 정했다. 그러나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 자전 주기가 계속 변하므로 1초의 길이에 오차가 생겼다. 1956년 세계 도량형 총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길이를 기준으로 1초의 길이를 정했는데, 1년의 길이는 매년 변하므로 이 역시 오차가 발생했다. 1967년 세슘 원자를 활용하여 1초의 길이를 정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30만 년에 1초의 오차가 있는 세슘 원자시계를 개발하여 국가 표준시로 활용하고 있다. 대덕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3대의 세슘 원자시계가 있다.

3) **원자**는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또 다른 에너지 상태로 옮겨 가는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데, ……

⇒ 2)의 세슘 원자가 특정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다. '전이'라는 개념만 잘 짚어 두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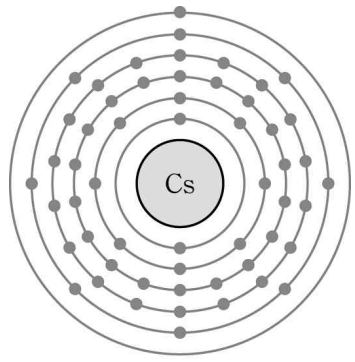
[참고]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다른 궤도로 옮겨 갈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는 핵 주위의 특정한 에너지 크기를 가진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하는데, 이를 전자껍질이라고 한다.

4) …… 세슘 원자시계는 세슘 원자가 일정량의 에너지를 지닌 전자기파를 흡수할 때에만 특정한 전이가 일어난다는 점을 활용한다.

⇒ 세슘 원자시계는 세슘 원자의 전이 현상을 활용해 만들었다는 거다. 원자들이 그러하듯, 세슘 원자도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주변에 있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흡수하겠다. 이때 '특정한 전이'가 일어나는데, 이는 1초의 길이를 정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게다. 그렇다면 세슘 원자의 '특정한 전이'에 대해 알아볼 차례다.

특정 전자기파 9,192,631,770번 진동	⇨ 에너지 흡수	세슘 원자
= 1초의 길이		특정한 전이가 일어남

[참고] 세슘은 원자 번호 55번인 금속 원소로, 원자 기호는 Cs다. 세슘은 매우 높은 반응성을 가지며 공기 중에서 자발적으로 산화되며 불이 붙고, 찬물과 닿으면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한다. 금속 세슘은 수분이 완전히 차단된 용기 및 용액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세슘은 약 30종의 다양한 동위 원소를 갖는데, 세슘-137의 경우 방사선 치료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핵무기의 사용이나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로서 그 위험성이 큰 원소이다.



<세슘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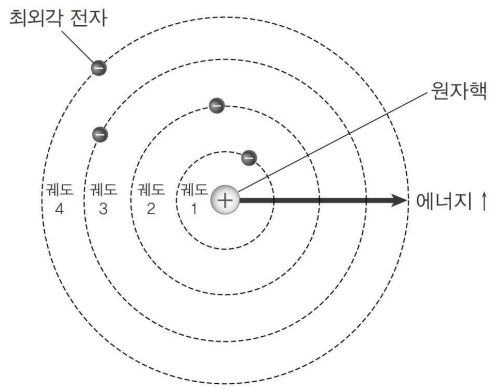
 # 문단2 : 세슘 원자의 두 바닥상태

1) 원자의 에너지 상태 중 **바닥상태**는 원자가 지닌 에너지가 가장 작아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장 바깥에서 원자핵 주위를 도는 **최외각 전자**가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궤도** 중 가장 안쪽 궤도에 있는 상태이다.

⇒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궤도부터 차례대로 채워진다. 원자핵에서 가까울수록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의 에너지는 작아지며 멀어질수록 이 궤도의 에너지가 커진다. 가장 바깥 궤도를 도는 전자가 최외각 전자이고, 최외각 전자가 더 큰 에너지를 받아 더 먼 궤도에 있을 수 있지만 최외각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쪽 궤도에 있는 상태가 바닥상태가 되겠다.

[참고] 바닥상태인 원자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들뜬상태'라 한다. 들뜬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바닥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전자들은 원소에 따라 특정한 에너지 사이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에 방출하는 에너지도 원소에 따라 다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 그런데 세슘 원자는 두 개의 미세 상태를 바닥상태로 가지는 특이성이 있다. 두 미세 상태를 'A 상태'와 'B 상태'라 할 때, ……

[주목] 두 개의 미세 상태를 바닥상태로 가지는 점이 바로 문단 1-4)에서 세슘 원자가 특정한 전이를 하는 이유다.

⇒ 세슘 원자는 특이하게 바닥상태가 2개라는 말이다. 아주 미세한 에너지의 차이를 두고 'A 상태'와 'B 상태'의 바닥상태가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A 상태'와 'B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세슘 원자시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가 되겠다.

3) …… B 상태일 때 최외각 전자의 궤도가 미세하게 [A 상태보다] 바깥쪽에 있어서 B 상태에 있는 원자의 에너지가 조금 더 크지만 그 차이가 극히 미세하여 둘 다 안정적인 바닥상태인 것이다.

⇒ 최외각 전자가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궤도 중 가장 안쪽 궤도에 있는 상태가 바닥상태다. 이에 따르면 최외각 전자의 궤도가 A 상태보다 B 상태가 더 바깥에 있다면 바닥상태는 A가 되겠다. 그런데 A 상태와 B 상태의 차이가 지극히 미세해서 둘 다 바닥상태가 된다면, 에너지는 미세하게 'A 상태 < B 상태'일 것이다.

4) 세슘 원자가 A 상태에 있다가 두 미세 상태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기파와 상호 작용하여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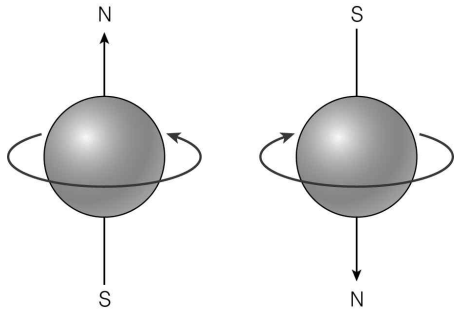
⇒ 단순화해서 가령 A 상태의 에너지가 8이고, B 상태의 에너지가 10이라면, A와 B의 에너지 차이인 '2'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세슘 원자는 B 상태로 전이되겠다.

[Rew] 문단1-3)에서 '원자는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또 다른 에너지 상태로 옮겨 가는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 점을 떠올려 보자.

5) …… 최외각 전자가 지닌 **물리량**인 **스핀**이 변하면서 최외각 전자가 궤도를 옮겨 가서 B 상태로의 전이가 일어난다.

⇒ 세슘 원자가 두 미세 상태에 있을 때 지니는 에너지 간의 차이가 일정한 성질을 이용해서 세슘 원자시계를 만들었겠다.

[참고] 지구가 자전하듯이 전자는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고전 역학에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회전하면 각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갖는다. 전자 역시 각운동량을 가지며 이것을 '스핀'이라 한다. 그런데 스핀은 고전 역학의 각운동량과 같은 회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실제로 회전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회전하는 물체마냥 어떤 값을 갖는데, 이를 스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모든 입자는 특정한 스핀을 가지며, 이는 일정한 운동량으로 질량이나 전하량 같은 입자 내부적인 본성에 해당한다.



6) 이와 달리 상호 작용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이[→ A 상태와 B 상태의 에너지 차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흡수한 에너지가 곧바로 방출되어 아무런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

⇒ 전자는 에너지 궤도들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 궤도들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전이가 일어난다. 만약 그 에너지 차이보다 작은 에너지를 흡수하면 궤도를 전이시키지 못하고 에너지가 방출된다. 즉 A 상태와 B 상태의 에너지 차이보다 에너지가 작으므로 세슘 원자는 별일 없다.

7) …… 이[→ A 상태와 B 상태의 에너지 차이]보다 큰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가 [B 상태보다] 훨씬 더 바깥쪽의 궤도로 옮겨 가며 불안정한 상태인 **들뜬상태**로 전이한다.

⇒ 세슘 원자의 두 바닥상태인 A 상태와 B 상태의 에너지 차이보다 더 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최외각 전자는 B 상태보다 훨씬 더 바깥쪽의 궤도로 옮겨 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세슘 원자는 안정적인 바닥상태에서 벗어나 들뜬상태로 전이한다는 말이다.

<세슘 원자가 A 상태일 때>

A 상태와 B 상태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면	⇨	B 상태로 전이
A 상태와 B 상태의 에너지 차이보다 작은 에너지를 흡수하면	⇨	전이 ×
A 상태와 B 상태의 에너지 차이보다 큰 에너지를 흡수하면	⇨	들뜬상태로 전이

 # 문단3 : 시계 주파수

1)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전자기파가 초당 진동하는 횟수인 **주파수**에 비례하는데, 세슘 원자를 A 상태에서 B 상태로 전이시키는 전자기파의 주파수인 9,192,631,770Hz를 **'시계 주파수'**라 한다.

[맥락 짚기] 세슘 원자의 전이에서 '시계 주파수'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 '시계 주파수'가 바로 '1초의 길이'다.

⇒ 전자기파의 단위 시간당 진동 횟수가 늘어나면 주파수도 커지고 에너지도 커지겠다. 그러나 오차 없이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계 주파수보다 작거나 커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관건이겠다.

[참고] '주파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로, 단위는 Hz(Hertz, 헤르츠)를 쓴다. 진동수라고도 한다. 소리를 들을 때 주파수를 높낮이로 느낀다. 주파수가 커질수록 높은 소리, 작을수록 낮은 소리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진동수는 20~20,000Hz이다. 피아노에는 보통 88개의 건반이 있는데, 가장 낮은 소리는 27.5Hz, 가장 높은 소리는 4186Hz다.

2) 세슘 원자시계는 시간[→ 1초의 길이]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세슘 원자시계] 내부에서 생성되는 전자기파가 항상 '시계 주파수'를 가지도록 조정한다.

⇒ 정확하게 '9,192,631,770Hz'에 해당하는 시계 주파수가 생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오차 없이 세슘 원자시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계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세슘 원자의 바닥상태를 'A 상태 → B 상태'로 전이가 일어나도록 하면 되겠다. 문단2의 구구절절한 설명은 이를 위한 전제였다.

 # 문단4 : 세슘 원자시계의 작동 원리 – 시계 주파수 생성

1) 세슘 원자시계는 수정(水晶) 발진기, 주파수 합성기, 원자 공진기, 원자 방출기 그리고 피드백 전자 회로로 구성된다.

[맥락 짚기] 세슘 원자시계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통해 구체적인 작동 과정을 밝히겠다.

⇒ 5개의 부품 각각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 수정에 전압을 가하면 수정 분자들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전압**의 세기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기파가 생성된다.

⇒ 세슘 원자시계에서 세슘 원자가 흡수하는 특정 전자기파는 바로 수정에 전압을 가하면 나오는 전자기파였나 보다.

[참고] 전압이 높을수록 전자기파의 에너지도 강해진다. 왜 그럴까?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공의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중력이 공을 잡아당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력에 의해 공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전기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정지해 있던 전하는 전기장에서 가속 운동을 한다. 전압은 바로 '전기력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전기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전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 에너지의 일부가 '파동'의 형태로 이동한다. 이것이 전자기파다. 일반적으로 전압이 높을수록 전자기파의 에너지도 역시 커진다.

3) **수정 발진기**에서 주파수가 10MHz인 전자기파가 생성되면 **주파수 합성기**는 이[→ 10MHz인 전자기파]를 '시계 주파수'[→ 9,192,631,770Hz]를 지닌 전자기파로 증폭하여 튜브 모양의 **원자 공진기** 내부로 방출한다.

⇒ ①수정에 전압을 가하면 ②'수정 발진기'에서 10MHz인 전자기파가 생성된단다. 9,192,631,770Hz인 시계 주파수를 바로 만들어 낼 순 없나 보다. 그래서 ③'주파수 합성기'에서 시계 주파수로 전자기파를 증폭한다는 얘기겠다. 이후 증폭된 전자기파는 ④'원자 공진기' 내부로 방출된다. 차근차근 순서만 밟아 나가면 그리 어렵지 않다.

4) 수정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10MHz보다 작거나 크면 원자 공진기 내부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 역시 이에 비례하여 '시계 주파수'보다 작거나 커질 것이다.

[주목] 시계 작동의 핵심은 '정확성'이다. 오차 발생의 첫 번째 가능성은 수정 발진기에서 생성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다.

⇒ 그렇다는 얘기는, 주파수 합성기가 항상 정확한 시계 주파수를 지닌 전자기파로 증폭하지 않는다는 거다. 즉, 수정 발진기에서 나온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10MHz보다 크면, 증폭된 주파수도 시계 주파수보다 커지고, 10MHz보다 작으면 증폭된 주파수도 시계 주파수보다 작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2)에서 수정에 가하는 전압의 세기와 관계가 있다. 시계 주파수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 문단5 : 세슘 원자시계의 작동 원리 – 세슘 원자의 전이

1) 원자 공진기에 연결되어 있는 **원자 방출기**는 A 상태의 세슘 원자들을 방출한다.

[맥락 짚기] 전자기파의 방출 과정에서 '세슘 원자'의 방출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

⇒ 한편 ⑤세슘 원자는 원자 방출기에서 나와 원자 공진기로 간다. 세슘 원자시계는 세슘 원자의 A 바닥상태와 B 바닥상태, 즉 두 미세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항상 일정한 것을 활용하여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A 바닥상태부터 출동이다.

2) 이 세슘 원자들이 원자 공진기 내부를 통과하며 주파수 합성기로부터 방출된 전자기파와 상호 작용한다.

⇒ 수정에 전압을 가해 발생한 ⑥전자기파와 세슘 원자가 상호 작용한다. 이때의 전자기파의 주파수의 크기가 시계 주파수이면, 세슘 원자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흡수해 A 상태에서 B 상태로 전이될 것이다.

3) 이때 세슘 원자들이 원자 공진기를 통과하는 속도인 **표류 속도**(= 전기장에서 이동하고 있는 전자 또는 정공의 평균 속도)가 기준치보다 빠르면 세슘 원자들이 전자기파와 충분히 상호 작용하지 못해 에너지[→ A 상태와 B 상태 차이만큼의 에너지]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

[주목] 세슘 원자시계의 두 번째 오차 발생 가능성은 세슘 원자들의 표류 속도다.

⇒ 세슘 원자의 표류 속도가 빠르면 충분한 상호 작용이 일어나지 못해서 'B 상태 에너지−A 상태 에너지'만큼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 세슘 원자는 계속 A 상태겠다.

4) …… 표류 속도는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B 상태로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 세슘 원자의 표류 속도는 반드시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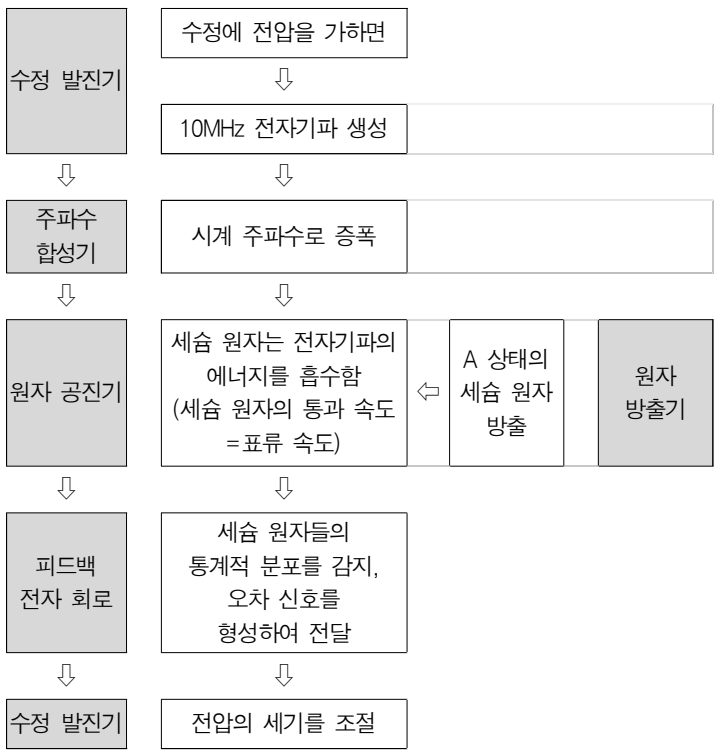
⇒ 세슘 원자시계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시계 주파수', '표류 속도의 기준치 이하로 유지'가 핵심이다.

5) **피드백 전자 회로**는 원자 공진기를 빠져나온 세슘 원자들의 통계적 분포를 감지하고 그 결과를 숫자로 표현되는 **오차 신호**의 형태로 수정 발진기에 전달한다.

⇒ ⑦피드백 전자 회로는 오차 신호를 수정 발진기에 전달한다.

⇒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피드백 전자 회로는 오차 신호를 원자 공진기로 보내지 않고 수정 발진기에 전달한단다. 즉 세슘 원자가 아니라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여 오차를 해결한다는 뜻일 게다.

<세슘 원자시계의 작동 과정>



6) 오차 신호는, 원자 공진기를 빠져나온 세슘 원자들이 B 상태로 밀집되어 분포하면 0, ……

[맥락 짚기] 세슘 원자의 표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세슘 원자가 A 상태냐, B 상태냐, 들뜬상태냐에 따라 오차를 분석한다.

⇒ 수정에서 발생한 전자기파의 진동이 1초에 9,192,631,770번이면 세슘 원자들은 B 상태로 전이할 것이다. 이는 세슘 원자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므로 오차 신호는 0이 되겠다.

7) …… A 상태로 밀집되어 분포하면 음수, 들뜬상태로 밀집되어 분포하면 양수가 된다.

⇒ 한편, 표류 속도가 빠르면 세슘 원자는 A 상태로 분포한다. 세슘 원자는 전자기파와 충분히 상호 작용하지 못해 에너지를 적게 흡수했으므로 오차 신호는 음수가 된다. 반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되면 오차 신호는 양수가 된다. 물론 이때는 들뜬상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세슘 원자의 통계적 분포에 따른 오차 신호>

수정에서 발생한 전자기파의 진동이 1초에 9,192,631,770번이면	⇨	B 상태로 밀집되어 분포	⇨	오차 신호 0
에너지를 적게 흡수하면	⇨	A 상태로 밀집되어 분포	⇨	오차 신호 음수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	⇨	들뜬상태로 밀집되어 분포	⇨	오차 신호 양수

8) 오차 신호가 0인 경우에는 수정 발진기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전압의 세기를 유지하지만, ……

⇒ 오차 신호가 0이라면 세슘 원자는 B의 상태로 밀집되어 분포하므로 세슘 원자시계의 작동 결과는 정확한 1초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전압의 세기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

9) …… [오차 신호가] 음수[→ A 상태]이거나 양수[→ 들뜬상태]인 경우에는 그 수의 절댓값에 비례하여 [수정 발진기에 가하는] 전압의 세기를 각각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자신이 생성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10MHz가 되도록 보정한다.

⇒ 전압을 인가하는 곳은 문단4-2)에서 설명한 수정이다. 가령, 원자 공진기를 통과하는 세슘 원자들의 표류 속도가 기준치보다 빠르면, 오차 신호는 음수가 된다. 음수의 절댓값에 비례하는 만큼 전압의 세기를 높여서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를 방출할 것이다. 반면 원자 공진기를 통과한 세슘 원자가 들뜬상태가 되어 양수인 경우에는 전압의 세기를 절댓값만큼 낮추어 ⑧전자기파의 주파수가 10MHz가 되게끔 조절한다. 이때 세슘 원자의 표류 속도 조절은 전압의 세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세슘 원자의 통계적 분포에 따른 전압의 세기 조절>

세슘 원자 상태	오차 신호		전압의 세기
A 상태	음수	⇨	높임
B 상태	0	⇨	유지
들뜬상태	양수	⇨	낮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 현대시 : (나)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작품 평가**

핵심은 명확하다! 슬픔이 힘이 된다는 것이다. 화자는 상실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일 수 있음을 '여백'에 대한 성찰을 통해 깨닫고 있는 게다. 비워졌으니 '여백'이지만, '여백'이 있어야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 작품 분석**

 # 1연-1 : 돌아가신 어머니는 내게 큰 '여백'을 남겼다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 물론 핵심어는 '여백'이다. 이 대목에서 '여백'은 일단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 1행을 주목하자. 이 '여백'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자리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A.'빈자리'**, 즉 **'없는 자리'**이다.
2) 이번에는 2행을 주목하자. 이 '여백'은 '선산 뒤에' 걸려 있다. 따라서 이 '여백'은 **B.'무덤 뒤의 풍경'**을 가리키기도 한다.
3) 이제 3행을 주목하자. 이 '여백'은 '말씀보다 더 크다.' '말씀'은 물론 '살아생전 어머니의 가르침'일 게고, 따라서 이 '여백'은 '살아생전 어머니가 내게 줬던 가르침보다 **C.'더 큰 무언의 유산'**이 된다.
4)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된다 : 'A는 나를 B 앞에 앉아 있게 했고, 그 경험은 내게 C를 주었다.'

 # 1연-2 : 무덤 뒤의 풍경 아래 앉아 있으면……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 여기서 '여백'은 그냥 B의 의미다. 해 질 무렵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동산에 올라 '무덤 뒤의 풍경' 아래 앉아 있으면……

 # 1연-3 : 도시 생활에서 쌓인 온갖 번뇌들이 사라지고……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 도시 생활에서 쌓인 온갖 번뇌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 '방생(放生)'은 불교에서 '잡은 생물을 놓아주는 의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생명을 살려 주는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 들로 흘러가는 시냇물을 멀리까지 바라보다 보면 온갖 번뇌가 사라진다는 얘기겠다.

⇒ 화자는 '여백' 아래 앉아서 시냇물이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방생'의 의미를 떠올리고, 자신의 생명력을 옥죄던 번뇌를 씻어내고 있는 게다.

 # 1연-4 : 여백은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모든 번뇌를 사라지게 한다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위의 3에서 봤던 '온갖 번뇌들을 씻어내던 '방생의 시냇물'이다. 이제 그 시냇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라졌으니 화자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 깨끗하게 정화된 마음으로 비로소 볼 수 있는 풍경이라 하겠다.

⇒ 번뇌와 욕심이 없으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다. 맑은 마음으로 보니, 바람 속에 새가 날고 있는 평범한 풍경에서조차 만나고 헤어지는 찰나의 인연을 느낄 수 있게 된 게다.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 번뇌가 사라지고 난 뒤에 남은 여백은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킨단다. '번뇌의 사라짐 → 여백 → 더 큰 여백'인 거다. 이거 참 '여백의 무한 증폭'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구나.

⇒ 이 '더 큰 여백'은 더 짙어지는 여운이라고 볼 수도 있다. 화자는 '멧새의 발목'을 치며 무심하게 스쳐가는 '바람'에서 짙은 여운을 느꼈는데, 그런 눈으로 보니 온 자연이 바람과 같은 찰나의 인연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된 게다.

막막궁산(= 고요하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 깊은 산속) **오솔길로 사라진다**

⇒ 이런 식으로 '여백'이 '무한히' 증폭되면서 '번뇌'도 무한히 '소멸'된다.

⇒ 화자는 '바람'이 무수한 자연물들을 스쳐 저 멀리 '오솔길'로 사라지는 것에서,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무수한 만남과 이별을, 또한 그로 인한 아름다움을 새로이 깨닫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1) 최대한 의역(意譯)하면 이렇게 된다. '어머니의 부재를 통해 남겨진 '여백'은 도시 생활에 지친 나를 위로한다.'
2)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 **어머니의 부재 → 여백 = 삶에 지친 나에 대한 위로**

3) 이건 어머니의 무덤에서 겪었던 몇 번의 개인적 체험을 적은 게다. 이제 이 '개인적 체험'을 '모든 존재'로 확장하게 되는데……

 # 2연 : '개인적 체험'의 보편적 확장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사라지는 것들'이다. '개인적인 체험'은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되는 거다.

⇒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화자는 상실감도 느꼈지만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만남과 헤어짐이 무수하게 이어지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둥근 여백'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느낀 상실감이자 동시에 정화된 내면을, '뒤안길'은 [1연의 '오솔길'과 연결해 보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새롭게 보게 된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어지는 존재의 길을 뜻한다.

⇒ '둥근 여백' = '뒤안길' =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이겠다. 다시 말하자면, 그건 상실감이자 새로운 탄생인 것이다.

⇒ 이제 왜 '여백'이 '쓸쓸함'이고 또한 '탄생'인지가 분명해졌다. '여백'은 상실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자 탄생인 것이다.

 # 3연 : 개인적인 소망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 쉽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됐을 때……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 나의 죽음이 '너'의 삶을 실의에 빠트리거나 상실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이 너에게 여백, 즉 여운으로 남아서 네가 또 다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이겠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 도치된 문장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6~31] 인문-사회 : 반계의 '실리' 사상과 그에 입각한 '균전제'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동양 철학 - 유형원
실리, 반계, 주자학, 이기론, 이, 기, 이기부잡, 이기불리, 주리파, 주기파, 기지리, 물지리, 이선기후, 이기합일의 묘, 도, 기
사회 - 정치학 - 균전제, 공거제
사전, 공전, 균전제, 수정권, 정병, 보인, 공거제, 과거제, 실학

*** 지문 분석**

 # 문단1 : 조선 후기의 문제

1) 왜란과 호란을 겪고 난 조선 후기는 갖가지 사회 모순으로 백성의 삶이 피폐해져 가던 시기였다. 당대 이념인 정통 유학으로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유학에 접근하였다.

⇒ 두 차례의 전쟁을 겪은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을 게다. 하지만 당시의 '정통 유학'은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했단다. 따라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해졌는데……

[주목] 다만 새로운 해결책이 '새로운 학문'이 아니라 '기존 유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사실에는 유의하자. 기존의 이념인 유학을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닌 게다.

2) 반계 유형원은 기존 유학의 토대 위에서 '실리(實理)'라는 개념을 재정립하여 당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혁안을 세웠다.

[맥락 짚기] '기존 유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취한 일부 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반계 유형원'의 관점을 살펴보자는 얘기다. 그 과정에서 '실리'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이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문단2 : '이'와 '기'의 관계

1) 반계는 실학의 시조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시 당대의 주류 철학[→ '정통 유학']이었던 **주자학**의 이기론을 자신의 철학적 토대로 삼았다.

[Rew] 문단1-2)의 표현을 끌어오자면, 반계는 기존 유학인 주자학의 '이기론'이라는 토대 위에 '실리'라는 개념을 재정립했다는 게다. 따라서 반계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기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2) **이기론**은 사물의 보편적 원리인 **'이(理)'**와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인 **'기(氣)'**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현상을 '이'의 측면과 '기'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점만 파악하고 넘어가자. 이 둘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읽어 봐야겠다.

3) 현상의 존재 근거와 당위성을 궁구(=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면 '이'가 '기'보다 근원적이고 우위에 있어 그 성격이 분명히 구별되므로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이기부잡(理氣不雜)'**의 관계가 성립한다.

[주목] '이'와 '기' 사이에 항상 '이기부잡'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특정 관점[→ 현상의 근원을 따지는 관점]을 취할 때는 둘 사이에 '이기부잡'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 현상의 존재 근거와 당위성을 탐구하면, 그 현상의 근거인 보편적 원리에 해당하는 '이'에 특히 주목하게 될 게다. 이때의 '이'와 '기'는 섞일 수 없이 확연히 구별되는데, 이런 관계를 '이기부잡'이라 한단다.

[참조] 이때 '현상의 존재 근거와 당위성'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가도 문제는 없다만, 그 의미 역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사과나무로 자라난 것'을 현상이라고 했을 때 그 존재 근거는 '사과나무의 씨앗'일 게다. 그런데 '사과나무의 씨앗'은 다시 사과나무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사과나무로 자라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결국 '존재 근거'와 '당위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4) 반면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면 '이'는 '기'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에 깃들어 있으므로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기불리(理氣不離)'**의 관계가 성립한다.

[주목] '이'와 '기' 사이에 항상 '이기불리'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특정 관점[→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따지는 관점]을 취할 때는 둘 사이에 '이기불리'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따진다면, '이'는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인 '기'에 깃든 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때의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데, 이런 관계를 '이기불리'라 한단다. '이기부잡'이 '이'와 '기' 중에서 '이'에 주목한 해석이라면, '이기불리'는 둘 중에서 '기'에 주목한 해석일 게다.

[참조] '이기론'은 만물을 이원론에 따라 바라본다. '이'는 대상의 본질을 담고 있는 불변하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이와 달리 '기'는 개별적인 대상의 물질적 요소로 매 순간 달라지며, '이'를 실제로 담는 그릇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기'는 이토록 서로 다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되며 섞이지 아니한다[→ 이기부잡(理氣不雜)]. 하지만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는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도 하다[→ 이기불리(理氣不離)]. 두 설명은 각각이 참이면서도 상호 모순인 만큼 과연 '이'가 '기'보다 가치적으로 더 우선하는지 등 다양한 논리적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5) '이기부잡'을 강조한 학자들을 **주리파**라 하고 '이기불리'를 강조한 학자들을 **주기파**라 하는데, 전자가 당위적 질서를 중시했다면 후자는 현실 세계에 강조점을 두었다.

⇒ '이기부잡'은 '현상의 존재 근거와 당위성'에 주목한 해석이다. 이를 따르는 '주리파'가 당위적 질서를 중시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겠다. 반대로 '이기불리'는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에 주목한 해석이다. 이를 따르는 '주기파'가 현실 세계를 중시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겠다.

'이'와 '기'의 관계
↙ ↘
'이기부잡' '이기불리'
↓ ↓
주리파 주기파
[당위적 질서] [현실 세계]

[맥락 짚기] 그렇다면 '반계'는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주목해야겠다.

 # 문단3 : 반계의 '실리'

1) 반계는 현실 문제에 고민이 많았지만 [현실 세계에 강조점을 둔] 주기론에 경도되지는 않았다.

[Rew] 이때의 '현실 문제'는 문단1-1)의 조선 후기가 직면한 문제를 가리킬 게다. 날로 피폐해져 가는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반계의 관심사였다는 얘기다.

⇒ 집중하자. 반계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건 맞지만, 현실 세계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단다. 즉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현상의 존재 근거와 당위성'[→ 결국 '이']에도 주목했단 얘기다.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 "이는 단지 기의 이[氣之理]일 뿐"이라는 주기론의 주장에 따라 '이'를 **'기지리'**로만 규정한다면 본원적 원리[→ '이']에 근거하여 법칙적으로 발현되는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반계는 생각했다.

[Rew] 문단2-4)에 따르면, 주기론의 입장에서는 '이'와 '기' 사이에는 '이기불리'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결국 '기'라는 물질적 요소에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지리'].

⇒ 하지만 '반계'에 따르면, 아무리 '이'가 '기'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 어떤 현상이 법칙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그 안에 보편적 원리에 해당하는 '이'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단지 기의 '이'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3)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존재 근거가 있고 당연한 법칙[→ 당위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라는 것이다.

[Rew] '이'를 사물의 보편적 원리로 이해한 기존의 '이기론'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현상의 존재 근거와 당위성'에 주목한 문단2-3)의 주리론과 매우 유사하다. 결국 반계는 주기론에 쏠리지 않고 주리론의 입장 역시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게다.

4) 또 세상의 사물들이 [주기론이 주목하듯이] '기'의 구속을 받아 개별성과 차별성을 지니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당연한 법칙인]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 한마디로 모든 사물의 존재 근거이자 당연한 법칙인 '이'의 역할을 무시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반계'는 주기론처럼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되, 그 해결책으로서 만물의 당연한 법칙인 '이'에 주목하려는 것일 게다.

5) 따라서 반계에게 '이'는 현실의 사물을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주재성을 갖춘 '이'로서 **'물지리(物之理)'**이다. 즉 '이'를 '기'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물의 원리로 파악하였기에 반계는 그것을 **'실리'**라 칭했던 것이다.

⇒ 따라서 반계는 '이'를 '기지리'가 아니라 '물지리'로 이해했단다. 전자는 '이'를 '기'에 속한 것으로 낮추어 이해한 것이라면 후자는 '이'를 현실의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 것이다. 한마디로 반계는 '이'를 단순히 '기'에 구속된 '기지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게다.

[참조] 보편적 원리인 '이'는 사물의 물질적 요소인 '기'의 구속을 받기는 하지만, 동시에 드러난 현실의 사물을 주도하는 주재성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반계는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만큼,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매몰되는 대신, 결국 현실의 사물을 주도하는 '물지리'로서의 '이'[→ '실리']에 관심을 가진 게다.

 # 문단4 : 반계의 '이'와 '기'의 관계 해석

1) 또한 반계는 '이'와 '기'의 관계도 **이선기후(理先氣後)**의 선후 관계가 아니라 형이상(形而上)과 형이하(形而下)의 상하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맥락 짚기] 반계는 '이'를 '실리'로서 새롭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기'의 관계 역시 새롭게 이해했단다. 상하 관계가 선후 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 '이'와 '기'의 관계를 선후 관계로 이해한 '이선기후'는 정통 유학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가 '기'보다 앞선다는 것은 '이'가 '기'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선기후는 굳이 따지자면 정통 유학의 관점 중에서도 주리론의 해석에 가깝겠다. 결국 반계가 이선기후를 부정하고 '상하 관계'를 내세웠다는 것은 주기론에 경도되지도 않았지만[→ '이'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주리론에 갇히지도 않았음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2) 즉 각각의 사물에서 형이상과 형이하의 관계로 떨어질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기'라는 것이다.

⇒ '이'와 '기'를 선후 관계로 바라볼 경우, '이'가 '기'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 이기부잡]은 강조되겠지만, '이'가 '기'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기불리]은 강조되지 않을 게다. 따라서 반계는 '이'가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형이상으로 해석하면서도], 각각의 사물에 '기'와 떨어질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한 게다.

[참고] 주자학에서 '형이상'은 사물이 어떤 형태를 갖기 이전의 근원적인 모습을 가리킨다. 반면 '형이하'는 우리가 현실에서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킨다.

3) 이것은 '이'를 상(上), '기'를 하(下)에 배치시킴으로써 '이'의 우월성과 본연성을 유지하면서도 만물이 **'이기합일의 묘'**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하려 한 것이다.

⇒ '이'가 '기'보다 앞(先)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상(上)에 배치된다면, '이'의 '기'에 대한 우위성이 유지되면서도, 2)에서 강조한 대로 '이'가 '기'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 즉 이 둘이 하나로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드러낼 수 있을 게다[→ '이기합일의 묘'].

[주목] 반계가 '이'의 '기'에 대한 우월성과 본연성을 여전히 인정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와 '기'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겠다. 전자는 '주리론'도 마찬가지이지만, 후자는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진 반계만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4) 반계는 이러한 관계[→ 상하 관계]를 그대로 **도(道)**와 **기(器)**의 관계에도 적용한다. 여기서 도(道)는 도덕을 의미하고 기(器)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다. 반계가 '이'와 '기'의 관계를 형이상과 형이하의 상하 관계로 이해했듯이, '도'와 '기'의 관계도 상하 관계로 이해했단 얘기다. 이런 모양새를 상상하면 되겠다.

형이상	이(理)[→ 실리]	도(道)
형이하	기(氣)	기(器)

⇒ '도'와 '기'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이해했을 때, 마찬가지로 '도'가 우위에 있다는 점보다는 '도'가 '기'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할 게다.

5) 그는 당시의 사상적 풍토가 도(道)만을 중시하고 기(器)에 소홀했다고 비판하며 제도[→ 기(器)]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도덕[→ 도(道)]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오해하지 말자. 반계가 '도를 중시한 것'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기에 소홀한 것'에 문제 제기를 한 게다. 이유는 뻔하다. '도'가 '기'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기'의 정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게다.

[주목] '기'의 정비 역시 '도'의 우위를 전제로 함에 주목하자. '기'의 정비를 강조한 것도 그래야만 그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도'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여전히 '도'가 더 중요하지만 '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도 중요하다.

6) 그래서 그는 단지 도덕적 당위를 권고하기보다 ……

⇒ 그래서 반계는 [현실의 제도를 정비하지도 않고] 무작정 '도'만을 중시하여 '도'를 마땅히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대신……

7) …… 실리에 입각한 적극적인 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 형이상의 '실리'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이하의 '기(器)'[→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말로만 도덕(道)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도덕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器)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맥락 짚기] 이제부터는 '갖가지 사회 모순으로 백성의 삶이 피폐해져 가던 시기'였던 조선 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혁안이 제시될 게다. 반계는 '주기론'처럼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사물의 원리인 '실리'를 강조함으로써 주기론에 경도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문단5~7의 제도 개혁안을 이해할 때도 어떻게 '실리'가 강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 문단5 : 균전제

1) 반계의 제도 개혁안은 『반계수록』(1783)에 집대성되어 있다. 반계가 보기에 당시[→ 조선 후기]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궁구하여 제도[→ 기(器)]에 적용할 객관적인 표준이 확립되어야 하며, ……

[Rew] 문단4-5)에서도 강조했지만, 반계의 제도 개혁안은 도덕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표준'[→ '이'를 궁구한 결과]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게다. 그래야만 이를 '기'에 적용하여 도덕을 실현시킬 수 있을 테니 말이다.

2) …… 이 표준은 구체적인 생업의 문제[→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주재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Rew] 문단3-5)에서 반계는 '이'를 현실의 사물을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주재성을 갖춘 '실리'로 이해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표준'은 현실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주재성을 갖춰야만 한다[→ 그래야만 '실리'가 실현될 수 있다.].

3) 반계는 그 객관적 표준을 '토지를 근본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반계는 현실의 문제를 주재할 수 있는 '실리'가 곧 '토지를 근본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게다. 따라서 반계의 제도 개혁안 역시 '토지를 근본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게다.

4) 이에 따라 반계는 **사전(私田)**을 없애고 **공전(公田)**을 설치하여 이를 백성들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균전제**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맥락 짚기] 반계의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이 등장하는 대목이다. '균전제'는 '토지를 근본으로 하는 것'[→ 객관적인 표준]을 전제로 하는 만큼 토지의 분배에 대한 개혁을 다루고 있다. 문단4-4)의 정리를 다시 발전시켜 보면 다음과 같겠다.

형이상	이(理)[→ 실리]	도(道)[→ 객관적인 표준]
⇧	⇧	⇧
형이하	기(氣)	기(器)[→ 균전제]

⇒ 사전을 없앴다는 것은 토지의 사유(私有)를 금지했다는 뜻이다. 대신 공전을 설치하여 분배했단다. 왜 굳이 사전(私田)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는 아무래도 좀 더 읽어 봐야겠다.

5)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에게는 이[→ 분배받은 공전(公田)]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인 **수전권**이 인정되며, 농민은 일생 동안 수전권을 행사하고 사망 시에는 국가에 반환한다.

⇒ 수전권을 소유권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수전권'은 경작할 수 있는 권리에 국한된다. 사고팔거나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

6) 반계는 백성에게 생계에 필요한 재산인 항산(恒産)이 있어야 '인의'같은 도덕 원리가 확립된다는 옛 성인의 말을 받아들이되, ……

[Rew] 문단1-1)에서 설명했듯이, 애초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이 조선 후기의 '현실의 문제'였다. 당장 굶어 죽는 백성들에게 문단4-6)처럼 도덕적 당위를 내세우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따라서 반계는 이들에게 수전권을 제공함으로써 항산을 보장해 준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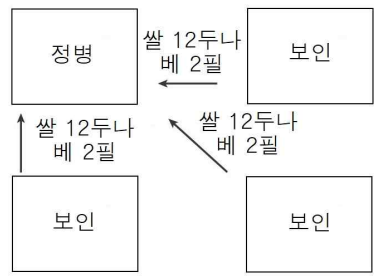
[참조] '항산'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일정한 재산'을 가리킨다. 맹자에 따르면 '항산'이 있어야만 '항심', 즉 일정한 도덕심도 가능하다. 따라서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도덕심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겠다. 항산 없이도 항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의 선비뿐이다. 반계가 수전권을 백성들에게 분배한 것 역시 '항심'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항산'을 보장해 주기 위함인 게다.

7) …… 이것이 지나친 욕망을 부추겨 도덕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로써 제어한 것이다.

⇒ 4)의 의문이 해결되는 지점이다. 백성들이 사사로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면,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 '생계에 필요한 재산' 이상의 재산을 탐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계가 제도를 개혁하고자 한 것은 언제나 '도덕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음을 상기하자. 제도를 통해 '도덕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8) 또한 반계는 군역 문제도 이 균전제와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장정 1인당 토지 1경(頃)에 대한 수전권을 부여하고 4경을 단위로 병사 1명을 징발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4경 단위에서 1명이 **정병(正兵)**으로 복무하면 나머지 3명은 **보인(保人)**이 되는데, 보인은 쌀 12두나 베 2필을 정병에게 지원함으로써 복무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 다음과 같은 그림을 상상하면 되겠다. 4명의 백성이 각각 1경의 수전권을 부여받을 때, 그중 1명의 백성이 정병이 되어 병사로 복무하고, 나머지 백성들이 보인이 되어 그 병사를 지원한다는 얘기다. 토지에 대한 수전권을 기준으로 군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전제'와 연계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 문단6 : 공거제

1) 그러나 균전제가 갖춰져 있더라도 지식인층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면 사전이 다시 생길 수 있으므로, 반계는 이를 막기 위해 **공거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했다.

⇒ 문단5-6), 7)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그만이다. 아무리 균전제가 갖춰져서 사전(私田)을 금지해도, 도덕적으로 부패한 지식인층이 권력을 남용하여 다시 토지를 사유화한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게다. 따라서 이들의 도덕적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균전제'와 별개로 또 다른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데, '공거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다.

2) 특권층이 모범 답안을 외워 한 번의 시험으로 관리가 되는 **과거제**와 달리 공거제는 계통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양성된 자를 관료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교육을 받을 기회는 양민에게도 주어지며, ……

[맥락 짚기] 반계가 제안한 새로운 교육 제도인 '공거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게다. '균전제'와 같은 맥락에서 읽어 낼 수 있도록 하자.

⇒ '과거제'가 애초에 특권층을 위한 제도라면, '공거제'는 양민이든 특권층이든 능력이 있으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관료가 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면 관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3) …… 관료가 된 자는 직급에 따라 2~12경의 토지에 대한 수전권과 녹봉을 지급받고 군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벼슬을 그만두면 녹봉은 중단되고 일반 백성처럼 수전권만 인정되도록 했다.

⇒ 또한 관료가 되어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수전권을 인정했으며, 벼슬을 그만두었을 때도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수전권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관료였던 자가 사망하면 해당 토지는 국가에게 반납되었을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문단7 : 반계의 제도 개혁안의 의의

1) 『반계수록』에 담긴 내용은 비록 조선 사회에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

⇒ 이러한 반계의 '균전제'와 '공거제'는 실제로 조선 사회에서 시행되지는 않았단다. 아무래도 사전(私田)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급진적이었던 탓이 클 게다.

2) …… 그의 개혁안은 후세 학자에게 영향을 주어 실학이란 학풍을 일으키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문단2-1)에서 이미 반계가 실학의 시조였음을 확인한 만큼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보아하니 실학 역시 반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을 게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2~36] 고전 시가 : (가) 안도환, 「만언사」

*** 수록 지문 평가**

1) 중인의 유배 가사이면서 귀양살이의 비참한 상황과 절실한 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작품이다. 여러 필사본들이 남아 있을 만큼 당대에도 인기가 많았다. 궁녀들이 모여 함께 읽으며 눈물 흘리고 손뼉 치며 웃기도 했다 하고, 정조 임금도 읽었다 한다. 수록 지문은 화자가 유배지인 추자도에 막 도착하여 간신히 거처를 마련한 직후의 상황이다. 주인집이 방 한 칸밖에 없는 가난한 처지라, 화자는 겨우 처마 밑에 거처를 마련한다. 사실 '거처'라고 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한때 서울에서 잘나가던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다 생각하고 화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 흘린다.

2) 사대부 양반이 아닌 중인의 유배 가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작품이다. 작가는 정조 임금 때에 임금의 심부름을 하던 대전별감 벼슬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의 이름은 이본에 따라 '안조원', '안조환' 등 여러 가지로 다르게 적혀 있는데, 최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안도환(安道煥)'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나왔다.

*** 수록 지문 분석**

 # 토막1 : 수심에 잠긴 밤

서산(西山)에 일락(日落, 해 떨어짐)하고 그믐밤 어두운데

→ 서쪽 산으로 해 지고 그믐밤 어두운데

⇒ '그믐'은 음력으로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이르는 말이다. 이날 밤엔 달빛이 거의 없어 여느 밤보다 훨씬 더 어둡다. '일락'에 이은 '그믐밤'은 시간적 배경을 알려 주는 표지이면서 화자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캄캄한 상황,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한 심리적 상황을 암시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남북촌(南北村) 두세 집에 솔불(=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에 붙인 불, 곧 관솔불)이 희미하다

→ 남촌과 북촌에 두세 집만 관솔불이 희미하다

⇒ 남촌과 북촌을 통틀어 관솔불을 아직 피워 둔 채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집은 겨우 두세 집밖에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에 들었다는 뜻이겠는데, 그 늦은 시각까지 홀로 잠 못 이루고 있는 화자의 심사를 한결 돋보이게 하는 표현이겠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고

→ 어디서 슬픈 소리[가 울려] 내 근심 더하는가?

⇒ 늦은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가 근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슬픈 소리'는 바로 아래 구절에서 '노 젓는 소리'임이 드러난다. '노 젓는 소리'가 슬프게 들린다는 건 화자의 감정을 거기에 이입한 때문이겠다.

별포(別浦)에 배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

→ 별포에서 배가 떠나며 [내는] 노 젓는 소리로다

 # 토막2 : 의식(衣食)으로 인한 고통을 한탄함

눈물로 밤을 새와 아침에 조반(朝飯) 드니

⇒ '토막1' 바로 앞부분에, 화자가 유배지에 도착하여 간신히 거처를 마련한 얘기가 나온다. 처마 밑에 자리 하나 깔고 누운 화자는 습기도 많고 뱀 같은 징그러운 짐승들도 많이 나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자연히 신세 한탄과 한숨,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덜 쓰른 보리밥에 무장(=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익게 한 뒤에 달이지 않고 그냥 먹는 장) 덩이 한 종지라

한 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 '쓿다'라는 말은 쌀, 조, 수수 따위의 곡식을 찧어 속꺼풀을 벗기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덜 쓰른'은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곡식이 거칠다는 뜻이겠다.

⇒ 제대로 도정하지 않은 거친 '보리밥'과 '무장 덩이'는 화자가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먹게 된 음식인 듯하다. '무장'엔 동치미 무나 배, 편육을 얇게 썰어 넣어 먹기도 한다는데, 화자가 먹은 것에는 틀림없이 메주 덩이만 덩그러니 있었을 거다. 이런 음식을 처음 보는 화자로서는 아마 선뜻 먹지를 못했던가 보다. 한 술을 떴다가 그냥 내려놓은 것을 보면…… 이들 음식은 추자도라는 절해고도의 가난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소재이면서 화자의 귀양살이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다.

그도 저도 아조 없어 굶을 적이 간간이(=가끔씩)라

→ 그도 저도 아주 없어 굶을 적이 간간이 있네.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웨라

→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워라.

⇒ 동물적 생존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음식인데, 여름 내내 굶주려야 했으니 화자의 처지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했음을 잘 알겠다.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 염천(南方炎天, 남쪽 지방의 몹시 더운 날씨)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 '누비바지'는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고 줄이 죽죽 지게 박아서 만든 바지로 추운 날씨에 입는 옷이다. 당연히 찌는 여름 더위에 입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추울 때에 소의 등을 덮어 주는 멍석)인가

⇒ 자신의 누비바지를 보고, 굴뚝 막는 데 쓴 멍석을 떠올린 게다. '굴뚝 막은 덕석'은 아마 시커멓게 그을려 있을 게다.

덥고 검기 다 버리고 냄새를 어이하리

→ 덥고 검게 [때 탄 건] 다 내버려 둔다 해도 냄새는 어찌하리?

⇒ 유배지에서 먹고 입을 것 없어 말할 수 없이 궁핍하고 비참해진 처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의식주에서 열악한 상황을 묘사하며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은 사실 이곳 말고도 여러 곳에서 보인다. 이처럼 화자는 귀양살이의 비참함을 감추거나 덜어 냄 없이 매우 자세하고 솔직하고 드러내고 있는데, 때론 매우 적나라하면서도 때론 해학적이고 자조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옵더니

→ [예전엔 내] 손[을] 잡고 반기는 집[도] 가지 않던 나인데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 등 [떠]밀며 [밖으로 나를] 내치던 집[에] 구차히 빌어서 [살고] 있으니

⇒ 위 두 구절은 잘나가던 과거와 비참한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

[참고] 수록 지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화자가 추자도에 도착해 거처를 정하기까지 사실 어려움이 많았다. 섬사람들이 화자를 냉대하며 있을 곳을 내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기에는 작가가 정치범이 아닌 일반 형사범이었던 사정이나 양반 사대부가 아닌 중인층이었던 탓도 있겠지만, 유배객을 받아들여 군입(=본식구 외에 덧붙어서 얻어먹는 객식구)을 늘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궁핍한 현실 탓이 컸을 것이다. 관가의 압력으로 결국 한 집에 빌붙게 되었지만, 집주인은 '세간 그릇 흩던지며 역정'을 낸다. 전답도 없어서 물고기 낚아 팔아 세 식구가 겨우 먹고사는데 '양식 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려'느냐며 화자를 원망하는 것이다.

옥식 진찬(玉食珍饌, 맛있는 음식과 진귀한 음식) 어데 가고 맥반 염장(麥飯鹽醬, 보리밥과 소금장) 대하오며

→ 맛있고 진귀한 음식 어디 가고 보리밥 소금장 앞에 두고

금의 화복(錦衣華服, 장식이 화려한 비단옷) 어데 가고 현순백결(懸鶉百結, 옷이 해어져 누덕누덕 기워 짧아진 옷) 하였는고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화려한 비단옷 어디 가고 해어져 기운 누더기 걸쳤는고?

⇒ 음식과 옷을 들어서,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과거와 유배지에서의 비참한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 이 역시 귀양살이의 고달픔과 비참함을 강조하기 위함이겠다.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 자신의 초라한 몰골이 귀신처럼 보인다는 거겠다. 그만큼 궁핍한 현실이 믿기 어렵다는 말이겠고, 고통스럽다는 뜻이겠다.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

→ 말하는 것을 보면 산 사람인데 행색은 꼭 귀신이로구나.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 한숨과 눈물이 쉴 새가 없다는 거다. 이 작품 여기저기에서 화자는 한숨과 눈물을 되풀이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행동이겠지만, 그 심층에는 타인의 동정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도 없진 않을 것 같다.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 돌이켜 생각하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난다.

이 모양이 무슴 일고 미친 사람 되었고나

→ 이 꼴이 무슨 일인고, 미친놈이 되었구나.

⇒ 울다가 웃다가, 실성을 했나 자조하고 있다.

(중략)

 # 토막3 : 봄꽃을 보며 인생무상을 느낌

방초(芳草, 향기롭고 꽃다운 풀)는 처처(處處)한데(= 곳곳에 널렸는데) 춘풍(春風) 소리 들리거늘

→ 꽃다운 풀 곳곳에 자라고 봄바람 소리 들리는데

⇒ 비로소 봄이 된 거다. 주목할 것은 이처럼 계절이 바뀌면서 시의 분위기도 전과 많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봄이 주는 따스함과 밝은 분위기 덕분이겠는데, 화자는 자신의 앞날에 적지 않은 희망을 품어 본다.

[참고] 「만언사」의 전체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작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출생과 성장에 관한 얘기, 유배의 경위, 유배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유배지의 생활을 노래하다 마지막으로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유배지의 생활은 여름, 가을, 겨울, 봄의 순서로 서술되다가 몇 가지 에피소드가 끼어든다. 이렇게 보면, 봄을 노래하는 이 대목은 작품 전체에서 후반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눈 씻고 일어 앉아 객창(客窓, 객지에서 묵고 있는 방의 창)을 열쳐 보니

→ 눈 씻고 일어나 앉아 창문을 열어 보니

⇒ 봄바람이 산들 불며 창밖으로 나뭇가지 부딪쳐 내는 소리에 화자는 잠을 깬다. 사실 지난밤에는 바람이 불며 비를 흩뿌렸다. 아마도 겨울이 가고 새봄이 돌아옴을 알리는 비였으리라. 객지, 곧 유배지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처음 맞는 봄이니, 온갖 고생을 겪은 화자로서도 마음이 들뜨는 것은 어쩌지 못하였을 것 같다.

창전(窓前)에 수지화(樹枝花, 나뭇가지에 핀 꽃)는 웃는 듯 하였고나

→ 창가 나뭇가지에 핀 꽃이 웃는 듯하구나!

⇒ 꽃이 새삼 화자를 보며 웃을 까닭이 있겠는가마는, 봄을 맞이한 화자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차츰 환하게 밝아지고 있는 거다.

반갑다 저 꽃이여 예(= 예전에) 보던 꽃이로다

→ 반갑다, 저 꽃이여, 예전에 보던 꽃이로구나!

⇒ 화자는 나뭇가지에 핀 꽃을 보며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자연의 순환을 새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꽃을 통해 서울에서 지냈던 지난 삶들을 회상하게 된다. 여기서 '꽃'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는 셈이다.

낙양[→ 옛날 중국의 동주(東周)와 후한(後漢)의 도성이었던 곳. 여기서는 조선 시대에 '한성'이라고 부르던 서울을 의미하겠다.] 성중(城中)에 저 봄빛 한가지(= 형태, 성질, 동작 따위가 서로 같은 것)요

→ 서울 성안에도 저 봄빛이 똑같을까

⇒ 문장 말미의 '피었는가'에 쓰인 의문형 어미를 기준으로, 이 부분도 의문을 나타낸다고 보는 편이 좋겠다.

⇒ 예전 자신이 벼슬을 하던 서울도 지금 이렇게 봄빛이 넘칠까 하고 생각한 거다. 유배지에서의 봄을 보며 그리운 곳의 봄을 떠올려 보는 게다.

고향 원상(園上, 정원)에 이 꽃이 피었는가

→ 고향의 뜰에도 이 꽃이 피었을까?

⇒ 꽃이 고향에도 피었을 줄을 뻔히 알면서 괜스레 묻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지만 계절의 이치는 변함없음을 환기함으로써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서울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려는 의도는 말할 것도 없고.

간 해 오늘날에 웃음 웃어 보던 꽃은

→ 지난해 이맘때 웃음 웃으며 바라보던 꽃은

청준(淸樽, 맑은 술을 담은 술동이)의 술을 부어 꽃 꺾어 헴[→ 계산]을 놓고

→ 술동이 맑은 술을 부어 꽃가지 꺾어 셈을 하면서

⇒ '꽃가지 꺾어 셈을 한다'는 것은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꽃가지를 꺾어서 그 수를 헤아려 마신 술의 잔 수를 헤아린다는 뜻이겠다. 이런 모습은 옛 선비들의 풍류를 잘 보여 주는 것이겠다.

장진주(將進酒, 술을 권하며 부르는 노래) 노래하여 무진무진(= 한없이) 먹자 할 제

→ 장진주 노래하며 한없이 [술을] 먹자 할 때

⇒ '장진주'는 술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해 술을 권하며 부르는 노래로 중국 당나라 때의 이백의 '장진주'가 유명하다. 우리나라 노래로는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세그려'로 시작하는 정철의 '장진주사'가 알려져 있다.

내 번화(繁華, 번성함과 화려함) 즐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 나의 번화함을 즐기면서 저 꽃을 보았더니

⇒ 화자는 웃음 속에서 '꽃'을 완상하던, 서울에서 보내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그 풍요롭고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내 번화'라는 것은 그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벼슬을 하던, 한창 잘나가던 시절을 가리키는 것일 게다. 그 시절의 꽃구경은 꽃 자체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라기보다는 번성하고 화려한 자신의 지위, 또는 처지를 즐기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꽃구경이 자기만족 또는 자기 과시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의미겠다. 4행 아래에 있는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라는 구절과 대비를 이룬다. 같은 꽃을 보지만, 예전과 지금의 처지가 다른 것처럼 꽃을 대하는 관점이나 시각이 달라졌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한창 잘나가던 시절 웃음 지으며 보던 꽃과 지금 고생과 눈물 속에서 보는 꽃이 전혀 다른 의미로 화자에게 다가온다는 뜻이겠다.

올해 이날에 눈물 뿌려 보는 꽃은

→ 올해 이날에 눈물 뿌리며 보는 [이] 꽃은 [예전 보던 꽃과 다르구나!]

⇒ 의미 맥락상, '예전 보던 꽃과 다르구나'를 덧붙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 듯하다.

아침에 나쁜 밥이 낮 못 되어 시장하니

→ 아침에 [먹은 찰기 없는] 거친 밥은 낮이 [채] 못 되어 [소화되어] 시장하니

⇒ '나쁜 밥'은 문맥으로 보아, '찰기 없는 곡식으로 지어 거칠고 쉽게 시장기를 느끼는 보잘 것 없는 밥'을 이르는 말이겠다.

박잔(薄盞, 거친 잔)에 흐린 술이 값없이 쉬울쏜가

→ 투박한 잔에 흐린 술이라도 값없이 [얻기가] 쉽겠는가?

⇒ '박잔'은 '생김새가 볼품없이 둔하게 생긴 잔'으로 보면 되겠고,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흐린 술'은 품질이 떨어지는 술로 이해할 수 있겠다. '박잔에 흐린 술'은 '청준의 술'에 비해 조잡하고 값이 싼 술이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극심한 궁핍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화자로서는 '박잔에 흐린 술'마저 값을 치를 돈이 없으니 마실 수가 없는 게다.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 내 고생과 슬픔 속에서 저 꽃을 다시 보니

⇒ 이 구절은 앞에서 '내 번화 즐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와 대비를 이룬다.

전년(前年) 꽃 올해 꽃은 꽃빛은 한가지나

→ 지난해 꽃, 올해 꽃이 꽃빛은 한가지나

⇒ 자연의 모든 현상이 지난해와 다름없이 되풀이됨을 언급하며 자연의 변함없음을 노래하는 한편, 사람 일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는 거다.

전년 사람 올해 사람 인사(人事,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는 다르도다

→ 지난해 사람, 올해 사람, 사람살이는 다르구나!

⇒ 자연은 그대로인데, 세상 살며 겪는 일은 이런저런 변화를 겪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화자 자신의 처지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데에서 비롯된 인식이겠다.

인생 고락(苦樂, 괴로움과 즐거움)이 수유(須臾, 짧은 시간) 잠의 꿈이로다

→ 인생의 고락이 잠깐 자는 동안의 꿈이로구나.

⇒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잠깐의 꿈에 지나지 않음을 나름 깨달은 거겠다. 맑은 술 가득 부어 꽃가지 꺾어 셈하며 마시는, 그렇게 번화한 처지를 즐기며 꽃을 바라보는 시절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지만, 사람살이는 정말 변화가 무궁하여 어찌 될 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다. 어찌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잠깐인 것처럼, 슬픔과 괴로움도 잠깐일지 모른다. 이런 깨달음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힘이 되기도 하겠다.

 # 토막4 : 의복으로 인한 고통을 다시 한탄함

이렁저렁 허튼 근심 다 후리쳐(= 팽개쳐) 던져두고

→ 이런저런 허튼 근심 다 팽개쳐 던져두고

⇒ 예전엔 이랬는데, 하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해 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옛날 생각을 하며 설움에 잠겨 있기에는 눈앞의 문제가 절박하다.

의복 그려 하는 설움 목전(目前) 설움 난감하다

→ 의복이 절실한 설움[이야말로] 눈앞의 설움[이라] 난감하다.

한 벌 의복 입은 후에 춘하추동 다 지내니

⇒ 유배지에서 겪는 어려움과 설움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이제 굶주림이 어느 정도 해소된 까닭인지, 화자가 느끼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입을 옷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아마도 이런 옷은 내 옷밖에 또 없으리

⇒ 옷 한 벌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을 다 나야 하는 궁핍한 처지를 강조하는 말이겠다.

여름에 하(= 아주, 몹시) 더울 제 겨울을 바랐더니

→ 여름에 아주 더울 때는 겨울 [되기를] 바랐더니

겨울이 하 치우니 도로 여름 생각하네

→ 겨울이 아주 추우니 도로 여름을 생각하네.

⇒ 무더운 여름이면 겨울이 생각나고 매서운 겨울이면 다시 여름이 생각나는 거야 인지상정이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거다. 아무튼 문제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옷 하나로 버텨야 하는 현실이다.

쓰오신 망건(網巾,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카락을 걷어 올려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인가 입으신 철갑(鐵甲, 쇠붙이를 겉에 붙여 지은 갑옷)인가

→ [내 옷이] 망건인가 철갑인가?

⇒ 자기 옷이 망건이나 철갑도 아닌데 늘 그것만 입고 있다는 게다. 망건이나 갑옷은 하나를 계속 쓰는 것도 말이 되겠지만, 어찌 옷을 하나만 계속 입고 지내겠나.

사시(四時)에 하동(夏冬) 없이 춘추(春秋)만 되었고저

→ 네 계절에 여름, 겨울 없이 봄, 가을만 있었으면 [좋겠다.]

⇒ 너무 덥거나 추운 계절은 견디기 어려우니 봄이나 가을처럼 따스하고 선선하여 그나마 지내기 힘들지 않은 계절이 일 년 내내 계속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겠다.

 # 주제 : 유배 생활의 고통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7~41] 예술 : 후기 인상주의와 고흐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회화 - 후기 인상주의
풍경화, 재현, 추상화, 표현, 인상, 사실주의, 원근법, 명암법, 「별이 빛나는 밤」,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고흐

*** 지문 분석**

 # 문단1 : 현대 회화의 새로운 장

1) **풍경화**가 실제 세계의 풍경을 보이는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면 형체를 알 수 없는 거친 선과 색채로 이루어진 **추상화**는 화가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회화에서 객관적 세계[→ 실제 세계의 풍경]는 재현의 대상이고 화가의 주관적 내면[→ 화가의 감정이나 정서]은 표현의 대상이다.
   ⇒ 풍경화를 포함한 구상화는 눈에 보이는 것, 즉 객관 세계를 재현의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추상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 등을 표현의 대상으로 삼는다.
2) 그런데 미술사를 보면 [재현의 대상인] 실제 세계의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도[→ 재현하면서도] 화가의 주관을 표현해 주는 그림들이 존재하는데, ……
   ⇒ 미술사에는 객관 세계를 재현하는 동시에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그림들도 있다는데……
3) …… 이 그림들은 회화의 본성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 현대 회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 이 그림들이 자각하게 했다는 '회화의 본성'은 무엇일까?

 # 문단2 : 객관적인 세계가 아닌 인상을 재현한 인상주의

1) 그 출발점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상주의**이다.
   ⇒ 객관적인 실제 세계를 재현하면서도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여 현대 회화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 '인상주의'라고 한다. 인상주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다.
2) 인상주의는 사실의 정확한 재현을 추구하는 그 이전의 **사실주의** 이념에 공감하여 실제 눈으로 본 것만을 그리고자 하였다.
   ⇒ 인상주의 역시 눈으로 본 것을 정확히 재현하려고 했다는데……
3) 그러나 인상주의 화가들이 눈으로 본 것은 객관적인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사물의 색채가 주는 **'인상'**이었다.
   ⇒ 다만 인상주의 화가들이 보기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인 세계 자체가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물의 색채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이었다.
   ⇒ 여기서 '객관적인 세계'란 인간이 인식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세계, 누가 언제 관찰하는지 관계없이 똑같은 세계를 말한다.
4) 그들[→ 인상주의 화가]에게 인상은 사물의 실체[→ 객관적인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빛의 자극이 눈에 들어와 만들어 낸 감각이다.
   ⇒ 인상주의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재현하고자 했다. 다만,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하고자 했고, 따라서 '사물의 실체'가 아니라 감각인 '인상'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실체'를 재현하는 것과 '인상'을 재현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
   [참조] '사물의 실체'는 '객관적인 세계 그 자체', 즉 인간의 감각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인간의 감각으로는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고,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물로 머릿속에서만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인상'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이 개개인에게 주는 감각이므로 고정된 실체가 있지 않고, 주관적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인상주의자들은 논리적으로 계산해 낸 세계를 객관적으로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주관적으로 재현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인상주의가 내면의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5) 그들의 풍경화는 풍경[→ 객관적인 세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경이 만들어 낸 감각[→ 인상]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감각이 곧 사실이었다.
   ⇒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린 풍경화는 객관적인 세계 자체가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인상을 재현하므로 주관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므로 사실적인 재현이라는 것이다.
6) 혼합 색을 표현할 때에 팔레트 위에서 색을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직접 원색을 병치시켜 관람자의 망막에서 혼합이 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도 인상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감각이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 보여 주고 싶은 혼합 색을 직접 팔레트 위에서 만들어서 채색한 것이 아니라 화면 위에서 원색들을 병치하여 관람자가 혼합 색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러한 방법을 쓴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감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고] 물감을 직접 섞어서 혼합 색을 만들면 색들이 섞임에 따라 탁해진다. 반면 원색의 점을 캔버스에 무수히 많이 찍으면 반사된 빛들이 섞이기 때문에 혼탁하지 않고 선명한 혼합 색을 얻을 수 있다.

 # 문단3 :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1) **후기 인상주의**는 인상주의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 세계를 구축한 예술 사조로, ……
   [맥락 짚기] 후기 인상주의와 인상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이어지겠다.
2) …… 그 화가 중 한 명인 **고흐**는 색채에 대한 인상주의자들의 발견에 깊이 공감하여 원색을 병치시켜 혼합 색을 표현하는 그들의 방법을 수용하였다.
   [Rew] 문단2-3), 4)에서 언급된 것처럼, 인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사물의 '색채'는 시시각각 변하는 빛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인간은 이를 감각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된다.
   ⇒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고흐는 그러한 인상주의자들의 성과를 공감하고 수용하였다. 여기까지는 후기 인상주의와 인상주의의 공통점이다.
3) 그러나 인상주의자들의 붓 터치가 짧고 끊어지는 형태였다면 고흐의 그것[→ 붓 터치]은 구불거리거나 휘몰아치는 형태를 띠었다.
   [주목] 문단3은 전체적으로 후기 인상주의를 소개하고 있지만, 문단2에서 미처 소개하지 않은 인상주의에 대한 특징 역시 일부 다루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읽자.
   ⇒ 인상주의자와 고흐의 붓 터치의 차이가 갖는 의미는 뭘까?
4) 인상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자 했던 인상주의자들과 달리 고흐는 이러한 붓 터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인상주의자들의 '짧고 끊어지는' 붓 터치가 빛에 따라 변하는 사물의 색채가 주는 '인상'을 효과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구불거리고 휘몰아치는' 고흐의 붓 터치는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고흐의 내면에 있던 감정은 '구불거리고 휘몰아치는' 것이었나 본데……
5) 순간적인 인상을 중시한 인상주의자들은 짧고 끊어지는 붓 터치로 빠르게 그림을 그렸고 그에 따라 화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원근법**과 **명암법**이 파괴되었는데, 이러한 화면의 평면성은 고흐에게 와서 더욱 강화되었다.
   ⇒ '인상'은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 바뀌는 색채를 통해 얻는 것이므로 '순간적'일 수밖에 없겠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인상주의가 이러한 인상의 전달에 주력하다 보니 원근법, 명암법이 무시되어 화면의 입체성이 사라지고 평면성을 띠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고흐에 와서 더욱 강화되었다는 거다.

6) 고흐의 그림 속 사물들은 명암을 무시한 채 뚜렷한 윤곽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크기와 배치는 원근법과 무관하였다.

⇒ 고흐는 명암법과 원근법을 무시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7) 고흐에게 그림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독자적인 세계이므로 실제 세계를 그대로 닮을 필요가 없었다.

[Rew] 4)에서 말한 것처럼 고흐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고흐가 원근법과 명암법을 무시하고, 실제 세계를 '그대로 닮'게 그릴 필요가 없었던 까닭이다.

 # 문단4 : 그림에 표현된 고흐의 내면

1) 고흐가 생 레미 정신 병원에서 동트기 전의 밤하늘을 보고 그린 「별이 빛나는 밤」(1889)은 그의 화풍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실제 세계를 닮게 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고흐의 화풍은 <별이 빛나는 밤>에 잘 드러나 있다 한다.



고흐, <별이 빛나는 밤>(1889)

2) 화면 속 사물들은 평면적으로 배치되었고 윤곽은 검은 선으로 강조되어 있다.

⇒ 원근법을 무시하고, 검은 윤곽선을 이용한 것은 고흐가 대상을 그대로 재현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3) 고흐는 파란 바탕이 마르기 전에 흰색과 원색 물감의 색 띠를 병치시켜 소용돌이치는 은하수를 표현했다.

⇒ 고흐가 그린 '소용돌이치는 은하수'는 고흐가 실제 본 것을 닮게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고흐의 내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겠다.

4) 화면 좌측에서 원근법을 무시한 채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사이프러스 나무는 별에 닿고 싶어 했던 그의 바람을 표현해 준다. 우측 하단에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은 병원에서 보이는 마을이 아니라 고흐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그의 고향 마을이다.

⇒ 고흐는 그림을 통해 그의 바람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5) 조용한 이성의 세계를 상징하는 고요한 마을 위로, 휘몰아치는 별들이 폭발하듯 빛을 발하는 이 장면은 고흐의 내면의 열정과 광기가 프로방스 지방의 밤하늘을 만나 화해하는 순간의 감정을 표현한 듯하다.

⇒ 고흐의 내면의 열정과 광기가 갈등하다가 화해하는 순간의 감정이 표현되었다 한다.

 # 문단5 : 현대 미술의 근간이 된 후기 인상주의

1) 그의 화풍은 또 다른 후기 인상주의자인 고갱 및 세잔의 화풍과 더불어 회화가 외부 세계의 재현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회화 자체의 속성인 2차원적 평면의 색채와 형태, 선의 조형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Rew] 문단1-3)에서 말한 '회화의 본성'은 '회화 자체의 속성'인 '평면성'과 '조형성'임을 알 수 있겠다.

2) 이는 회화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촉발하여 20세기 현대 미술의 근간을 이루었다.

⇒ 그렇단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2~45] 현대소설 : 임철우, 「동행」

*** 수록 지문 평가**

작품의 등장인물이자 서술자인 '나'가, 또 다른 등장인물을 '너'라고 지칭하는 특이한 서술 방식의 소설이다. '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다가 수배를 당한 인물이고, '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억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인물인데, '너'에 대한 '나'의 내면이 호소력 있게 전달되고 있다. 서술자인 '나'의 심리 상태에 감상의 초점을 두되, 암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군부 독재시대의 엄혹한 사회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

*** 수록 지문 분석**

 # 들어가기 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군부 정권의 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으며, 그 진상은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민주화 운동에 가담한 자들은 체포되거나 수배되었고, 운동의 진행 과정을 기억하는 이들도 그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야 지문 속 '나'의 심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너'가 수배된 까닭이나, '나'가 '너'를 잊고 싶어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작품이 쓰인 84년은 여전히 군부 정권의 독재가 진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시대의 억압은 상징적 이미지들이나 단편적 행동 속에 파편화되어 제시되어 있다. 이를 꼼꼼히 읽어 내야 작품을 정확하게 감상할 수 있겠다.

[앞부분 줄거리] 정치적 이유로 수배를 받아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너'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며칠 뒤 '나'에게 M시까지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한다.

 # 토막1 : '터널 안'과 '터널 밖'에서의 '나'의 생각

별안간 시야가 캄캄해져 버렸다[→ 열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창밖에서 들어오던 빛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어둡게 느끼는 것일 게다.]. 천장의 전구가 눈을 부릅떴고[→ 실내가 어두워져 전구에 불이 켜지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제법 긴장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다.] 한동안 쿵쿵거리는 쇠바퀴의 진동음만 객실 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다[→ 진동음은 터널 안이든 터널 밖이든 똑같았을 텐데, 아마 실내가 어두워져서 청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진동음을 더욱 민감하게 자각하게 된 것이겠다.]. 터널로 들어선 것이었다. 물밑으로 까마득히 가라앉고 있는 듯한 어지러움증으로 문득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나는 무엇엔가 쫓기는 것 같은 조급함을 느끼며 맞은편에서 흐릿하니 지워져 가고 있는 네 모습을 눈으로 더듬었다.[→ 실내는 '너'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어둡고, 쿵쿵거리는 바퀴의 진동음은 귀를 때리고 하는 상황이 '나'에게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 기차가 터널에 접어드는 상황이, '나'가 외부와 차단되어 스스로의 혼란한 내면으로 침잠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나'의 솔직한 마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돌아왔느냐[→ '너'에 대해 하는 생각이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너'에 대해, 왜 돌아왔느냐고 속으로 묻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 잊어버리고 싶은 어둠 속으로부터 너는 이렇게 뛰쳐나온 것이냐[→ '잊어버리고 싶은 어둠'은 그 이유를 암시하는 것이겠다. '나'에게는 어떤 아픈 기억이 있고, '너'는 그것과 결부된 존재다. '나'는 애써 그 기억을 묻어 두었는데, '너'가 다시 나타남으로써 '나'에게 그 아픈 기억이 다시 환기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이대로 내버려 두어 다오[→ '너'가 돌아오기 전에 '나'는 평화로웠던 모양이다. 혹은, 강제로 평화로워야만 했거나.]. 우린 자고 싶다. 이 평온한 잠에서 더는 깨어나지 않고 오래오래 누워 있고 싶다[→ '잠'은 현실을 지각하는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다. 즉 '평온한 잠'에 빠졌다는 것은 평온을 위해 현실을 외면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너를 사랑했었다[→ '너'에 대한 사랑이 과거형인 점에 주목하자. '나'의 이중적 심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대목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는 우리의 사랑을 나눠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시 너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항문 위쪽 뭉툭하게 잘린 꼬리뼈의 흔적처럼 우리들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오래도록 남겨지게 되리라[→ '너'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오래도록 남겨'질 것이라는 말은 곧, '너'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비유가 묘하다. 왜 하필 '뭉툭하게 잘린 꼬리뼈의 흔적처럼' 사랑을 남기겠다는 것인가? 꼬리뼈는 이미 퇴화해 버린, 그래서 현재는 흔적만 있을 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다. 즉 '너'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대목에서조차, '너'를 기억 속의 존재로 남기고자 하는 '나'의 속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제사(祭祀)는 이미 끝났다고 믿고 싶은 걸 어찌하랴[→ '제사'는 신, 또는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다. 즉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신념)의 의미로 이해하거나, 혹은 죽은 이들에 대한 추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든, 이는 예전에 있었던 '너'의 희생과 결부되는 것인데, '나'가 그것을 이미 '끝났다'고 믿고 싶어 하는 데 주목하며 다음 대목을 읽어 보자.]. 용서해 다오. 이제 새삼스럽게 제단으로부터 치워져 버린 순결한 짐승의 가죽, 아니 그놈의 핏자국 하나 털 한 오라기조차도 감히 보여 주려 하지 말아 다오[→ 희생양의 이미지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런데 제사는 끝났고, 희생양은 이미 그 흔적조차 치워져 버린 상태이다. 이를 두고 시대로 인해 희생된 '너'에 대한 추도를 재빠르게 마친 '나'의 상태를 읽어 낼 수도, 혹은 죽음을 은폐하는 시대상을 읽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그러한 희생과 죽음의 기억을 더 이상 떠올리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제식은 끝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되돌려 주신 그 전능하고 자애롭기 그지없으신 신으로부터 이제 부끄러운 우리는 안식과 평온과 권태의 밤을 그 제사에 대한 당연한 보답으로 받아 누려야 할 차례이므로[→ 그것을 더 보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나'는 평온한 '밤'을 받겠다고 하고 있다. '밤'은 앞서 언급한 '잠'의 이미지와 이어지는 것이겠다.]. 제발 이제는 그냥 내버려 다오. 우리는 피곤하다. 너무도 피곤하여 다만 자고 싶다. 자고 싶다.

⇒ '나'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 내적 독백이다. 대단히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서술로 가득 차 있지만, 흐름을 따라왔다면 가닥이 잡혔을 것이다.

⇒ '나'는 '너'를 원망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너'가 떠올리게 만드는 아픈 기억을 원망하는 것일 게다.

⇒ 한편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너'가 현재가 아닌 과거의 존재로 남아 있을 때의 일이다. 현실의 '너'가 잠을 깨우고 아픈 기억을 환기하는 일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 '들어가기 전'을 참고해 보자. '너'에 대한 외면으로 나타나는 '잠'과 '밤'의 이미지는 결국 현실에 대한 외면을 상징하는 것일 테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많은 희생자를 낳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상, 그리고 독재 정권이 사건을 은폐한 채 시민들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외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나'가 '너'를 망각하려 하는 데에는 시대적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너'에 대해, 즉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기에 시민들은 '잠'을 자도록 강요받았던 것이다.

눈앞이 다시 환해졌다[→ 터널을 빠져나온 게다.]. 천장의 전등이 이내 꺼졌다[→ 밝아졌기 때문이리라.]. 터널을 벗어나기까지의 짧은 순간에 나는 그렇듯 어둠 속에서 너에 대한 은밀한 배신[→ 바로 전까지 '너'에 대해 하던 생각을 '은밀한 배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을 혼자 재빨리 해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워 버리고 말았다[→ 그처럼 솔직하고 내밀한 내면 심리를 순식간에 다 드러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겠다.]. 한동안 나는 너를 쳐다보기가 두려웠다.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도 분간키 어려운 온갖 감정들이 엉망으로 헝클어지고 엉켜져서 마치 커다란 갱엿(= 검붉은 빛깔의 엿) 한 덩이를 목구멍으로 삼키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무엇인가에 대한 죄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혹시는 나 자신에게 느끼는 혐오감과 연민 혹은 서글픔[→ '너'에 대한 죄책감과, 스스로가 비겁한 배신자로 느껴지는 자괴감까지 덧붙은 심리 상태이리라. 그런데 '분노'와 '연민'이 섞여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아마도, '너'에 대한 은밀한 배신을 감행하게 만드는 정권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러한 정권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닐까?] 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

⇒ 기차가 터널을 빠져 나오면서, '나'와 외부와의 연결이 다시 재개되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다. 혼자만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서는 마구 떠올랐던 은밀하고 솔직한 마음이, 거리를 두고 반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중략)

 # 토막2 : '나'의 깨달음

M시에 도착한 것은 여덟 시가 훨씬 지나서였다. 우리는 승객들이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야 차에서 내렸다. 수문을 향해 물살이 쏠리듯 사람들이 바삐 플랫폼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너는 또 아까처럼 내게 먼저 나가라고 말했다[→ '너'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주는 부분이자, 군부 독재시대의 억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너'는 언제 어디서 '너'를 체포하기 위해 형사들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자신과 같이 있다가 자신이 잡히게 되면, 같이 있던 '나'에게까지 피해가 올 것이라 염려한다. 이 때문에 일부러 서로 일행이 아닌 것처럼 흩어져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에 감시와 억압이 가해지는 시대의 분위기를 염두에 두어야만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순순히 응했다. 개찰구를 향해 걸으며 슬쩍 뒤돌아보니 낯선 사람들 틈에 묻힌 채 네 커다란 몸집[→ 이 부분에서 '나'가 '너'의 커다란 몸집을 의식하는 것은, 수배 생활로 고통을 받은 '너'에 대한 연민을 담고 있는 것일 게다.]이 천천히 뒤따라오고 있었다. 너와 나를 떼어 놓고 있는 그 멀지 않은 거리의 의미를 나는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확인했다[→ '멀지 않은 거리의 의미'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멀지도 않지만 좁혀질 수도 없는 이 거리는, 감시와 억압 때문에 '너'와 나란히 설 수 없는 시대상을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민주화에 참여하였다가 쫓기는 '너'와, 참상을 목도하고도 일상을 살아가는 '나' 사이의 거리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후자로 해석할 경우, '나'는 이 거리에서 현실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셈이 되겠다.].

우리는 역 광장에 섰다. 빗발이 아까보다 더 굵어져 있었다. 저만치 거리를 질주해 가는 차량의 불빛이 어지러웠다. 비닐우산 한 개를 사서 함께 썼다[→ 대단히 상징적인 소재이자 상징적인 장면이다. 일단 눈여겨보아 두자.].

이젠 여기서 그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고맙다. 공연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 그러나저러나 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막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나 모르겠다.

그건 염려 마라. 시간은 충분해.

네가 내민 손을 나는 잡았다. 불현듯 어쩌면 너를 앞으로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 '나'는 '너'가 결국 체포되어 목숨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희생을 과거의 일로 묻어 두고 싶어 했지만, '너'의 존재는 그것이 결코 과거의 일이 될 수 없음을, 억압으로 인한 희생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아귀에 안타깝게 힘을 주고 있었다.[→ '너'를 잃을 것이라 예감하는 데서 나오는 '나'의 심리적 반응이겠다. 터널에서와 달리, 이제 더 이상 '나'는 '너'의 희생을 그저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뭔가…… 뭔가 말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난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그 방법을 모르겠다니, 막막함과 갑갑함이 느껴진다. '해야 할 일'은 '너'를 돕는 일이겠으며, '들어가기 전'을 참고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민주화 운동에의 투신, 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일 등이 되겠지만, 군부 정권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체 어떡해야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나를 너는 한동안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다.

글쎄. 그렇지만 누구도 그걸 가르쳐 줄 수는 없겠지. 자기 몫의 삶을 결정하는 건 오직 자기 스스로일 뿐일 테니까 말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겠다.]. 어쨌든 모든 게 잘될 거야. 무엇보다도 넌 현명하잖니.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자. 아직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대단히 암시적인 말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을 참고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단히 많은 희생을 낳았고, 군부 정권의 억압은 가혹하기만 했으며, 광주의 진상은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광주의 기억을 지닌 시민들에게 있어서 이는 일종의 실패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 말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으며, 현실을 돌파할 방법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나는 말없이 네 손을 놓아주었다. 한동안 손바닥에 너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우산을 쓰고 가라고 했지만 너는 억지로 그것을 내 손에 쥐여 주며[→ '우산'은 이제 '나'에게로 넘어왔다.] 말하는 것이었다.

난 괜찮아. 갈 길은 나보다도 네가 더 멀잖아[→ '나'가 이 험악한 시대에 수배자를 도피시킨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멀고도 위험할 것이라는 '너'의 염려가 표면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심층적인 의미는, 이제부터 '나'의 삶이 멀고도 험한 민주화 운동이 길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겠다.].

너는 등을 돌려 빗속으로 뛰어나갔다. 이내 네 뒷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네가 서 있던 자리는 어느새 짙은 어둠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었다. 어디로 갔을까. 너는 또 어디로 스며들어 가 버린 것일까. 나는 네가 억지로 떠맡겨 놓고 간 그 허약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싸구려 비닐우산[→ 이쯤에서, '비닐우산'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상징물이라고 못 박아 두자. 그러면 왜 '나'는 '너'가 건네주고 간 우산을 허약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고 묘사하고 있을까? 아마 작가가 생각하기에 시대적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이를 이겨 내기에 시민들의 힘은 너무도 미약해 보였을 것이다. 민주화 운동의 길은 결코 화려하거나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너'가 쥐여 준 우산을 이어 받는 장면을 통해, 작가는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 가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으로 간신히 몸을 가리운 채, 네가 비워 두고 사라져 버린 그 막막한 어둠의 공간을 지켜보며 혼자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쩌면 이제 그 빈자리는 남아 있는 내가 채워야 할 몫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그제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너'를 대신하여 민주화 운동을 이어 가겠다는 자각의 단계에 도달하는 모습이겠다.].

⇒ (중략) 이후 부분은 대부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암시와 상징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작품 바깥 고리를 잘 이해하여 면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와 '나'의 '동행'은 끝나지만, 민주화를 위한 '나'의 노력의 여정은 그제야 새로이 시작되게 된다. 이처럼 동행의 끝에서 '너'를 보내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은, '너'의 상실에 대해 충분히 아파하면서도 그 아픔을 끌어안은 채 시대를 넘어설 방법을 찾을 때라야, 비로소 새로운 민주화 운동의 길이 열린다는 뜻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